

셰일가스, 신성장동력 사업 추가

ESS · LED 포함 17개로 ... 개발 본격화 대비해 종합대책 수립

정부가 셰일가스(Shale Gas) 개발과 ESS(Energy Storage System)를 신성장동력으로 추가 육성키로 발표했다.

정부는 9월5일 판교 세븐벤처밸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성장동력성과평가 보고대회>에서 신성장동력 추가내용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속 성장을 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며 “몇 년 전에는 셰일 가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국은 완벽한 기술을 만들어 생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셰일가스 개발 본격화에 대비해 에너지 ·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대형 리튬이온전지(LiB)로 야간 전력을 저장해 활용하는 ESS가 최근 전력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와 이행점검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8조70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지원을 했으며,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560조원을 벌어들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3.8%에서 2011년 현재 5.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에너지 · 고도물처리 · LED응용 · 그린수송시스템 · 첨단그린도시), 첨단융합(방송통신융합 · IT융합시스템 · 로봇응용 · 신소재 및 나노융합 · 바이오제약 및 의료기기 · 교부가식품), 교부가서비스(글로벌 헬스케어 · 글로벌 교육서비스 · 녹색금융 · 콘텐츠 및 SW · 국제회의 · 관광 및 전시) 등 17개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06>